

## 1/10(수) 전도서 6

### 전도서 3:1-1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 때가 있다

오늘 말씀은 본문 11절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시간도 지으시고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때도 다 정하셨음을 말씀합니다(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이다.”; 행 1:6-7,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가 모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시고 모든 일을 다 그의 때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며 허용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오늘 본문 1-10절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음’을 노래합니다(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희노애락으로 가득차 있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3-4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6-8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분의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수두룩합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도 경우에 따라 하나님은 그 병을 치료해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이 그 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시 73:3-5,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비록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몇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비록 내가 원하는대로 또는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대로 선하신 목자가 함께 계셔도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도 있는 것입니다(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리이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굳게 의지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그 현상의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정하시고 허용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또 낙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분 앞에서 서는 날에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는 그가 행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리고 욥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욥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되고 있다고 결코 교만해서도 안되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될 것입니다(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20,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전쟁을 위한 기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 있는데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3.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김요셉(T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